

통신서비스

다시금 붙어진 ‘망 중립성’ 논의

통신서비스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MWC2017에서 날아온 두 가지 뉴스, ‘망 중립성’ 논의 재점화

스페인 MWC2017에서 날아온 ‘망 중립성’ 관련 두 가지 뉴스는 향후 국내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는 소식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과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뉴스1: 미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 “망 중립성은 실수”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는 MWC2017 기조연설에서 ‘망 중립성은 실수(Mistake)이며, FCC가 이와 관련해 가벼운 규제(Light-Touch)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또한, 망 중립성이 네트워크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주장. 파이는 지난 달 초 통신사들의 ‘제로 레이팅(Zero-rating)’ 관행에 대한 조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통신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바 있음

뉴스2: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OTT 초과이익, 통신사·제작사와 분배 필요”

같은 날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MWC2017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는 통신사들이 다 하고 과실은 OTT사업자들이 가져간다’며 초과이익을 통신사나 콘텐츠 제작사와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는 사실상 망 중립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들의 부담을 호소

국내의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한 입장

국내는 2011년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사업자들이 이를 중용하고 있음. 또한, 2016년 말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플랫폼 중립성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시사점

국내의 경우 망 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일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망 중립성 논의가 국내 통신사들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리라고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 다만, 국내에서도 제로 레이팅 등 플랫폼 관련 이용자 부담 경감 내용이 논의될 경우 통신사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미국의 경우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가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Verizon, AT&T 등 미국 통신사들의 사업 및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용어정리

1.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 예를 들어 카카오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SK텔레콤이 카카오의 트래픽을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데이터 트래픽이 많지 않았던 인터넷 서비스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특정 사이트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트래픽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면서 논쟁거리로 부각

2. 제로 레이팅(Zero-rating)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이용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 즉,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트래픽 요금을 제로(0원)로 하거나 일부 부담해주는 방식. 최근 미국 AT&T가 모바일 전용 비디오 서비스인 'DirecTV Now'를 월 35달러에 출시했으나, 스마트폰으로 DirecTV Now를 시청할 경우 소모되는 데이터 비용을 '무료'로 선언하면서 제로 레이팅이 논란이 된 바 있음

3.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넷플릭스, 네이버TV캐스트, 옥수수(oksusu) 등이 이에 속함. Over the Top에서 'Top'은 셋톱박스를 의미하며, 셋톱박스 없이 볼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총칭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